

# 좁아진 韓·中 하늘길... 승무원 안전, '퀵턴'이 유일대책?

〈도착 당일 돌아오는 비행〉

신종코로나에 中 전노선 중단 검토  
국내 100개 노선 중 55개 이미 중단

아시아나 일부 제외 '퀵턴' 운영  
국가 기준 따라 현지 공항서 대기  
일부 승무원들 '불안감' 호소

중국으로 향하는 하늘길이 점차 좁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운항을 지속하는 노선에서는 '승무원 안전'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점차 확산되자 우한을 비롯한 중국 전 노선에 대해 비운항이 검토되고 있어 수익성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게다가 아직 운항 중인 일부 중국 노선에 탑승하는 승무원들의 안전도 확보되지 않고 있어 걱정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마스크 착용 등과 더불어 '퀵턴'의 운항 방식을 취하지만 여전히 일부 승무원들은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것.



지난 1월 29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의 한산한 여행사 카운터 모습. /연합뉴스

4일 업계에 따르면 국적 항공사들은 연이어 중국 노선에 대한 비운항 확대에 나서고 있다. 일부 저비용 항공사가 운데는 중국 전 노선을 운항하기로 결정한 곳도 있다. 에어서울은 지난달 28일 ▲인천-장자제 ▲인천-린이 등 노선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이스타항공도 제주-홍콩 노선을 제외한 중국 본토를 오가는 전 노선에 대해 2월 한달

동안 운항을 멈추기로 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운항하던 기존 100개의 중국 본토 노선 중 55개가 잠정 중단됐다.

'하늘길'은 좁아졌지만 여전히 운항 중인 노선에 탑승하는 승무원들의 안전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아시아나항공의 일부 노선을 제외하고 국적 항공사들 대부분이 중국 전 노선에 대해 '퀵턴'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아시

아나항공은 상하이 노선이 시간상 당일 돌아오는 게 어려워, 일정을 조정해 퀵턴을 검토 중이다. 퀵턴은 당일 목적지에서 바로 돌아오는 비행 방식을 의미하는데, 항공사들은 통상 일정에 따라 현지에서 1박 이상 머무르는 '레이오버'의 근무 형식을 취하기도 한다.

문제는 중국 노선의 운항 방식이 '퀵턴'이라고 해도 체류시간이 최소화될 뿐, 중국 현지에 발을 아예 안 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당일 본국으로 돌아오면 될 뿐 현지 공항에 내려 머무는 것은 항공사·목적지(국가)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또한 이미 업계에서는 퀵턴일 경우에도, 현지 공항에 내려 머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항공업계 관계자는 "보통 도시나 노선별로 다른데, 퀵턴이면 안 내리는 경우가 많긴 하다"며 "일부 항공사는 퀵턴 시 내려서 (현지 공항에) 입국 해서 바로 돌아온다. 퀵턴이라도 100%

안 내리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하회영 한국항공대 교수는 "원래 현지에서 승무원, 조종사가 하루 머물고 다음날 여객·화물을 싣고 돌아온다. 그런데 퀵턴은 가능하면 체류시간을 최소화시켜 당일 돌아오는 것"이라며 "(퀵턴을 하면) 현지 공항에 내린다. 기내 청소·간단한 기본 정비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대부분 공항에서 대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한 교민의 귀국 지원을 위해 대한항공 전세기에 탑승했던 승무원들이 최대 5일의 휴무를 가진 뒤 일정에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잠복기간이 2주인 것을 감안하면 짧은 수준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승무원이 일당 5일 휴무에서 그 이상으로도 연차를 더 붙여서 쓰고 싶으면 더 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신종코로나' 中 입장은?

상하이임 신임 주한중국대사가 4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본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자국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 백화점·마트 문화센터도 문 닫는다

롯데백, 29일까지 '임시 휴강'  
신세계·현대백, 일시중단 검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백화점과 마트가 문화센터 강의를 중단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4일부터 29일까지 영유아 및 임신부를 대상으로 한 강좌를 임시 휴강하기로 했다.

면역력이 취약할 수 있는 영유아와 임신부들의 건강을 고려한 조치다. 롯데는 휴강이 결정된 강좌에 대해서는 수강생에게 환불할 방침이다.

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도 수강 인원이 많은 대규모 강좌를 중심으로 강의를 일시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형마트들의 경우 휴교령이 내려진 지역의 문화센터 전 강좌를 중단했다. 이마트는 군산과 수원, 부천, 일산 고양지역에 위치한 8개 문화센터가 9일까지 휴강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초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대한 휴교·휴원 명령을 내린 곳이다.

이마트는 또 전 점에서 영유아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대형 행사를 취소

하고 앞으로 사태를 보며 추가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롯데마트도 군산과 평택, 안성 등지에서 영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좌를 중단했고, 홈플러스도 평택과 수원, 부천 등 11개 점포 문화센터가 문을 닫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가 늘어나면서 문화센터 강좌를 등록했다가 취소하거나 불참이 신청을 미루는 사례도 늘고 있다. 롯데백화점의 경우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겨울학기 강좌 취소율은 5%였고, 3월부터 시작되는 봄학기 접수율도 전년 동기보다 10% 정도 감소했다.

신세계백화점도 봄학기 강좌 접수율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 정도 낮은 반면 겨울학기과 봄학기 강좌 취소율은 지난해보다 2배가량 높아졌다.

현대백화점도 봄학기 등록률이 지난해보다 10%가량 떨어졌다.

롯데백화점 현종혁 마케팅부장은 "임산부나 영유아 자녀를 동반하는 회원들의 안전을 우선 고려해 휴강을 결정했다"며 "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과정을 검토해 정상화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 매일 7번 소독... 롯데, 신종코로나 방역 총력

호텔·면세점·마트 등 비상체계 구축  
열화상 카메라 설치, 발열 확인 실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사태가 확산하는 가운데 대형 유통 업체를 많이 보유한 롯데그룹이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며 긴장하고 있다.

롯데는 4일 외국인 방문이 많은 곳을 비롯해 호텔과 놀이공원, 백화점과 면세점 등 업장 방역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롯데월드에는 매일 전문 방역업체가 각종 놀이기구를 집중적으로 방역하고 있다.

롯데호텔은 국내는 물론, 해외 매장에서도 비상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업장에 열화상 카메라 설치하는 물론, 체크인할 때부터 투숙객의 발열을 확인한다.

또 국내 호텔의 경우 투숙 기간 중 고열이 날 경우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롯데면세점은 주요 매장은 전문업체가 하루 한 차례 방역하고 자체적으로도 하루에 여섯 번씩 자체 살균 소독 중이다.

롯데마트는 대여용 유모차는 대여할 때마다 고객이 보는 앞에서 직접 소독한 후 제공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전 점포의 손잡이와 엘리베이터 버튼, 화장실 등을 방역하고 점포 직원들에게는 마스크는 물론 장갑도 지급했다.

롯데백화점은 또 본점, 잠실점, 부산본점, 인천터미널점, 롯데아울렛 서울역점 등 관광객이 많이 찾거나 외국인 거주자가 많은 지역에 있는 점포 10곳을 집중관리점포로 선정해 관리하고 있다.

롯데지주는 "신종 코로나 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축해 그룹 차원에서 체계적인 대응 절차를 수립하는 등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태서 지난달 19일 입국... 3일에야 격리치료

16번째 환자 감염경로 역학조사

태국에서 입국한 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받은 국내 16번째 환자의 감염경로가 밝혀지지 않으면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중국과 일본에 이어 제 3국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보건당국의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현재 16번째 환자의 감염 경로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16번째 감염경로 '오리무중'

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6번째 환자는 지난 19일 방콕과 파타야를 여행 후 입국했으며, 25일 처음 신종코로나 감염증 증상이 발현됐지만 일주일 넘게 지난 3일에야 격리 치료를 받았다. 이 환자는 증상이 발현된 이후 광주21세기병원, 전남대병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았지만, 이달 2일까지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

분은 귀국 후 5일 정도 후부터 발병을 했기 때문에 감염당시에는 증상이 없었을 것이고, 중국이 아닌 태국에서 입국해 특별검역의 대상에서도 벗어났다"며 "현재 병원 진료 기록을 역추적해 노출 범위나 접촉자 범위를 선정하는 과정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만일 16번째 환자가 태국에서 감염된 것이 밝혀진다면 16번째 환자는 일본에서 감염된 12번째 환자에 이은 두 번째 제 3국 감염 사례가 된다. 현재까지 태국 내 확진자 수는 우리나라보다 많은 19명이다.

중국 외 지역 입국자들 중에서도 확진자가 잇달아 발생하며 불안감은 확산되는 추세다. 하지만 정부는 중국 외 지역에 대한 입국제한 검토는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현재 태국은 19명이 확진된 상태고 의심환자는 더 있는 걸로 안다"며 "국가의 위협도는 유행상황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중국 외 다른 국가

를 오염지역으로 지정하는 단계는 아직 아니며 진행되는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진단시약과 마스크 긴급공급

질병관리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코젠바이오텍이 개발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진단 시약 1개 제품에 대해 임시로 긴급사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 업체의 신청자료와 성능시험,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의 진단 정확성 등을 평가해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이 진단 시약은 우수검사실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 중 질병관리본부장이 지정한 50여개 민간의료기관에 우선 공급돼 7일부터 신종코로나 의심환자,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자 진단에 한시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다만, 태국을 다녀온 후 감기 증상이 있는 개인이 동네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일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세경 기자 seilee@